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심지가 진표의 점찰사상을 이은 까닭은?

'佛骨 간자' 신묘한 법연에 동화사 창건

1. 동화사의 종창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고승들은 왕자 출신이 적지 않았다. 하늘에 해가 하나 뿐인 것처럼 왕이 되지 못한 왕자에게는 출가(出家) 혹은 광인(狂人)의 길만이 주어졌다. 물론 출가 이후 신라 성덕왕과 고려 현종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왕자들은 왕위 쟁탈전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출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 신라 헌덕왕의 셋째 왕자였던 심지(心地)는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이 맑고 슬기로웠다. 그는 학문에 뜻을 둘 나이에 출가하여 스승을 따라 부처처럼 불도를 닦았다. 중앙(팔공산)에 머물던 그는 마침 진표(眞表)의 법통을 이은 영심(永深)법사가 진표 율사의 불골 간자(佛骨簡子)를 전해 받아 과증법회(果證法會, 占察法會)를 연다는 말을 듣고 뜻을 정하여 찾아갔다. 하지만 때가 너무 늦어 잡레가 허락되지 않자 뜰에 자리를 깔고 엎드려 대중과 함께 예참했다.

일주일이나 지나 큰 눈이 내렸다. 그런데 그가 섰던 땅 사방 10 여자 남짓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신기한 일을 보고 담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그는 별이 낫다고 사양하고 방으로 물러났다. 심지가 불당(佛堂)을 향해 조용히 예불을 올리자 팔굽과 이마에서 피가 흘러 진표율사가 선계산(仙溪山)에서 정진할 때와 같았다. 지장보살이 날마다 와서 그를 위문하였다. 하루는 지장보살이 법석을 마치고 본산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간자(簡子) 두 개가 자신의 옷깃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간자를 가지고 돌아가 영심에게 알렸다. 영심이 말하였다. "간자가 함 속에 있는데 그럴 리가 있는가?" 영심이 간자를 찾아보자 함은 그대로 있었지만 간자 두 개가 과연 없었다. 그는 매우 이상히 여겨 간자를 거둬 써서 넣어서 두었다.

심지가 길을 가다 다시 보니 여전히 간자가 옷깃에 붙어 있었다. 해서 심지는 되돌아와 법사에게 말하였다. 영심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뜻이 자네에게 있으니 자네가 받들고 가계." 영심은 간자를 심지에게 주었다. 그가 공산으로 돌아오자 중앙의 산신(山神)이 두 신선(神仙)을 거느리고 심지를 영접하여 산기슭으로 인도한 뒤 바위에 팽지가 되니/ 낙엽은 흩날리고 눈앞이 밝아지네/ 부처님 뼈의 간자 찾아 얻었으니/ 정결한 곳에 모셔 들고 정성 드리겠네."

산신이 노래를 부르고 나자 심지는 숲속의 샘에서 간자를 찾아 불당을 짓고 봉안하였다. 지금의 동화사 첨당(籤堂) 북쪽에 있는 작은 우물이 그곳이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심지는 흥덕왕 7년(832)에 이전의 유가사(瑜伽寺)를 거둬 개창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겨울철인데도 절 주위로 오동나무(桐) 꽃이 만발[華]하였기에 동화사(桐華寺)로 고쳐 불렀다 전한다. 하지만 불교 공인 이전인 신라 소지왕(昭知王) 15년(493)에 극달(極達)이 절을 짓고 법상종의 성격을 띤 유가사라는 이름을 붙일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심지가 창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

지 않다. 하여튼 심지는 진표-영심으로 이어지는 점찰사상을 동화사에서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2. 점찰사상의 가통

점찰사상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즉 『점찰경』의 경설에 입각한 것이다. 경전에는 지장보살이 나무쪽[簡子]을 던져 길흉과 선악을 점찰하고 참회하는 법이 설해져 있다. 이 경전에 의해 이루어진 법회를 점찰법회(占察法會)라고 한다. 신라의 원광(圓光)법사는 점찰보(占察寶)를 만들고 이 법회를 처음 열었다. 『점찰경』의 상권에는 189간자의 이름이 서술되어 있다. 1간자는 상승(上乘, 大乘)을 구하여 불퇴(不退)를 얻고, 2간자는 구한 과위[果]를 증명한다. 3간자는 중승(中乘, 삼승의 중간인 緣覺乘)을 구하여 불퇴를 얻고, 4간자는 하승(下乘, 삼승의 맨 아래 聲聞乘)을 구하여 불퇴를 얻는다. 5간자는 신통력을 구하여 성취하며, 6간자는 사범(四梵)을 닦아 성취한다. 7간자는 세신(世禪)을 닦아 성취하며, 8간자는 반고자 하는 묘계(妙戒)를 얻는다. 9간자는 일찍이 받은 것에 계구(戒具)를 갖춘다.

이에 대해 일연은 미륵보살의 설한 신득계(漸得戒)란 금생에 비로소 계를 얻음으로, 구득계(頓得戒)란 과거에 계를 얻고서 금생에 또 얻는 것이다. 때문에

진표 · 영심 · 심지로 점찰사상 이어져
〈점찰경〉 상권에 189간자 이름 서술
신라 원광, 점찰본 만들고 법통 이어
점찰사상, 유식 · 미륵 · 밀교와 긴밀

수행한 공덕에 따라 본래의 신계(新戒)와 구계(舊戒)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해명하고 있다. 10간자는 믿음에 머무르지 못하면서 하승(下乘)을 구하려는 것이다. 11간자는 아직 믿음에 머무르지 못하면서 중승(中乘)을 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72간자까지는 모두 과거 현재 중에 혹 선하거나 악하거나 얻거나 잃는 일이다. 이하부터는 모두 미래의 과보를 가리킨다. 173간자는 자신을 버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며, 174간자는 죽어서 축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귀(餓鬼), 수라(修羅), 인간(人), 인왕(人王), 천(天), 천왕(天王), 법을 들으며[聞法], 집을 떠나며[出家], 성승을 만나며[聖僧], 도술전에 태어나며[生兜率], 정도에 태어나며[生淨土], 부처님을 찾아 보며[尋見佛], 하승에 머물며[住下乘], 중승에 머물며[住中乘], 상승에 머물러[住上乘] 해탈하는 것이 189간자 등이다. 여기서 일연은 "주하승"으로부터 상승에 이르기까지는 불퇴(不退)를 얻고 여기서서는 상승을 얻어 해탈(解脫)한다 했으니 이것으로 구별된다" 덧붙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삼세의 선악과보의 차별상이다. 이것으로 점쳐 보고 그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이 서로 들어맞으면 감응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이르지 않으니 허무(虛謬)라고 한다. 곧 8간자와 9간자 둘 다만 189간자 중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연은 『송고승전』에는 다만 108 점자(籤子)라 하니 무슨 까닭인



동화사 봉황문 왼쪽 벽에는 심지 스님이 손수 정을 들고 새겼다는 말이 전하는 마애불좌상이 있다. 통일신라 9세기 작품으로 보물 제 243호다.

가? 아마도 저 108번위를 잘못 알고서 이른 것이며 경문의 글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까닭이라 해명하고 있다.

또 일연은 고려의 문인이었던 김관의(金寬觀)의 『왕대종록』(王代宗錄, 2권)을 살펴 "신라 말년에 대덕 석충(釋冲)이 진표율사의 가사 한 벌과 계간자(戒簡子) 189개를 고려 태조에게 바쳤다"는 기록을 덧붙이며 이러한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다만 그 역시 지금 동화사에 전하는 간자와 그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말하고 있다. 그런 뒤에 그는 찬시로 심지를 기리고 있다. "귀족의 집안에서 자라나 출가하였고/ 근검과 총명함은 하늘이 주었네/ 뜰에 쌓인 눈에서 간자를 얻어/ 동화사 산봉우리로 던졌네." 일연은 동화사의 창사가 진표-영심을 이은 심지의 점찰가공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3. 진표의 계승자

점찰사상은 유식사상과 미륵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식법상종의 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하는 유식사상은 인도의 미륵-무착-세친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교 인식론의 스펙트럼을 크게 확산시켰다. 유식사상은 다시 동아시아로 건너와 자은법상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이 유식법상종의 스펙트럼 속에서 뻗어 나온 또 다른 광선이 석존 입멸 후 56억 7천만년을 지나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립원 안의 용화수 아래서 성도하여 3회의 설법으로서 석존의 교화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미륵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륵은 석존의 업적을 돕는다는 뜻에서 보처(補處)의 미륵이라고도 하며, 현겁(賢劫) 천불(千佛)의 제5불이라고도 한다. 그가 주재하는 법회는 용화삼회(龍華三會)이다.

점찰사상은 이들 유식사상과 미륵사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찰하는 법과 참회하는 법을 주요 행법으로 하는 독자적인 사유체계라 할 수 있다. 수나

라 보리등(菩提燈)에 의해 번역된 『점찰선악업보경』(2경)은 하나의 진실한 경계[一實境界]에 난행도와 이행도[二道]의 사태와 이치를 보는 도리[觀道事理]가 갖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경이다. 본디 점찰이란 점서(占筮)의 법이자 밀교(密敎)의 비법(秘法)으로 나의 마음을 월륜(月輪) 혹은 연화(蓮花)로 관찰하여 그 위에 글자를 관찰하면 아자(阿字)가 변하여 여의보(如意寶)가 되어 그 보주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게 된다. 때문에 그 가운데 일체의 선과 악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 그 길흉화복을 알게 되는 것이다. 『대일경소』(4권)에서는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되 연꽃 위에 여의보주를 내외가 명철하도록 해야 하며, 지를 자세히 관찰할 때에 소중한 선과 악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여의주는 다만 아자(阿字)를 끝 뿐이다"고 하였다. 『비장기』(秘藏記) 말(末)에도 "아직 싹트지 않은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마음으로 월륜(月輪)을 관찰하고 윤상(輪上)에서 아자(阿字)를 관찰하여 여의주가 되고 보배구슬이 법계에 두루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밀교적 수행 비법이 유식사상과 미륵사상과 결합하여 점찰사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점찰사상은 그 계보가 유식사상과 미륵사상 뿐만 아니라 밀교사상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

점찰사상은 유식 법상종의 한 흐름
동아시아 불교인식론으로 일대 변혁
참회 주행법 크게 유행
진역 스님의 수정결사 등에 영향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찰경』에 입각한 점찰법회는 진표 이래 신라에서 널리 유행했으며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지눌의 정혜결사와 요세의 백련결사에 앞서 이루어진 진역(津嶽, ?~1074년경)의 지리산 수정결사의 사상적 배경 역시 유가 법상의 한 계통인 『점찰경』이었다.

진역은 지리산 오대사를 수축하여 수정사(水精寺)라 명명한 한 뒤 1) 결사대중 모두의 이름을 간자에 새겨 주고, 2) 매 15일마다 『점찰업보경』에 의해 이름 새긴 간자를 던져 선악의 보응을 점치며, 3) 점진 선악의 결과를 두 개의 함에 나눠 넣고 악보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결사 대중들이 대신 참회하고 다시 점을 쳐 보아 선보(善報)를 얻게 되면 그만두고, 4) 처음 선보를 얻었지만 다시 악보(惡報)에 떨어질 경우를 생각하여 일년마다 한 번씩 점을 쳐 보고 만일 악보에 떨어지면 처음과 같이 대신 참회하였다. 그는 이를 네 가지 수행 단계를 통해 수정결사의 행법을 확립하였다. 이 수정결사 역시 진표-영심을 이은 심지의 점찰사상을 계승한 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삼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www.buddhabook.co.kr

붓다북

Click!!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

붓다북!

붓다북 오프라인-매장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 동일하이빌 B1

☎ 02-953-7181